인터뷰

권기창 교수(정조공파 36세)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권기창 교수, 안동시 그 새로운 변화

신도청시대 안동 재창조,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

권오운 사무총장 : 교수님께서는 안동대학교에 제직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전공하신 학문은…

권기창 교수 :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갈 융합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문화정책, 지역개발, 미디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화산업의 소스를 발굴하고 이를 기획하며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인 문화복지와 미디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권기창 교수 : 경북도청 이전으로 안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선택 기준은 지도자의 스킨십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안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도자가 선출되어야만 새로운 안동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도청 시대, 안동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전문성입니다. 그동안 제가 안동발전을 위해 기획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이제 꿈을 현실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경상북도 도청이 재작년에 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안동 도청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정(市政)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권기창 교수 : 경북도청이전과 함께 안동이 경북의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 원도심 재생, 교육도시 명성회복, 관광객 1천만 시대 달성,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및 IT 융·복합 산업화 기반조성, 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신도청 시대에 맞게 재창조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이 시민에게 무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행정력,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그 사람 생각' 이라는 책을 출판하시고 또 출판기념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셨는데요. 책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창 교수 : '그 사람 생각'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얻은 결과와 안동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 에세이입니다. 유무형의 많은 자원을 가진 '안동'을 사랑하는 분들과, 고통을 이겨내고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안동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여 신도청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안동은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안동의 미래와 안동시민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안동을 재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재창조를 의미하시는지… 또 그런 비전을 이끌어갈 교수님의 시정철학은…

권기창 교수 : 신도청 시대에 맞게 안동이 경북의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을 재창조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 안동 도심공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동과 예천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구역통합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월13일 안동시장 선거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공론화 시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원도심을 재창조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시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장을 살기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시장의 새안동백화점과 안동극장, 진성극장, 신시장의 빈 상가와 대안극장을 활용한 음식테마파크, 공연시설 등의 집객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인한 안동역사 부지와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를 역사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철도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린이랜드를 조성하여 놀이시설, 학습시설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육을 재창조 하겠습니다. 안동의 지역 경쟁력 요소 중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명성 회복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고와 안동여고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교육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안동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1천만시대 조기달성으로, 한국속의 한국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축제와 안동댐과 임하댐을 활용하여 지역명소로 만들고 낙동강 관광벨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일자리 창출은 자족도시의 원천입니다. ICT/SW 융합 및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분야는 ICT/SW, 농기계 부품, 부품소재, 세라믹 생산, 물류센트 등이 될 것입니다. 농업은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생산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로컬푸드 기반을 마련하고 안동의 농특산물의 판로를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빅테이터 및 인공지능을 연계한 드론산업,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농·축산 ICT융합산업 모색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따뜻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의 격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희망 안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87년 체제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일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기창 교수 :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상당부분 맡겨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장점을 지니지 못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각 지자체가 기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사정에 꼭 맞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흙수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성공할 수 있었던 좌우명이랄까요…

안동시 임하면 단칸 누옥(陋屋)에서 자라나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되기까지 저의 시간은 눈물과 인내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생애 어느 한 날도 눈물 없이 채워지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밝은 미래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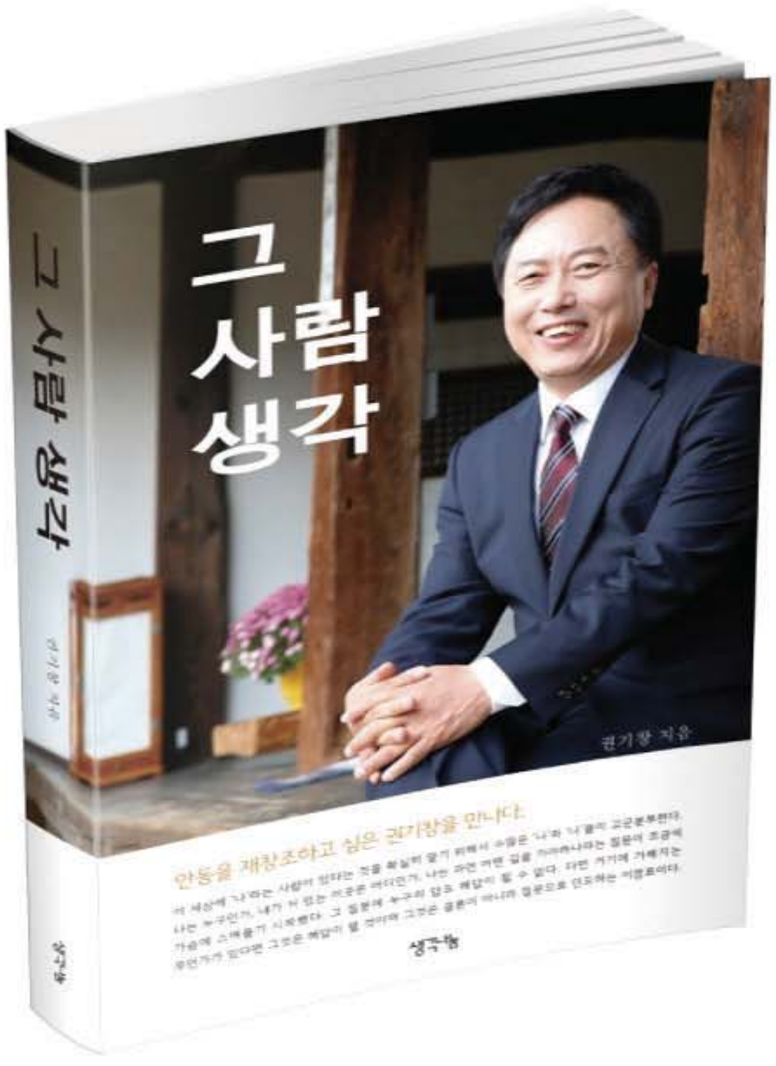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지난 어려운 세월을 고생 속에서 극복하며 나라와 집을 지키려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시련을 용케도 굽이굽이 잘 이겨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족친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족친간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여 늘 웃음이 넘치는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명문거족이란 말에 걸맞게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족친이 되겠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건강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81세의 홀어머니를 모시며 아내 황순녀와 출가한 딸과 아들 1남1녀를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먹고사는 일에 바빠 이이들이 커갈 때 따뜻한 아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아들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싶은 생각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한국인은 밥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세끼를 챙기려고 합니다만 요즘처럼 빠른 일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운동으로는 평소 수영과 가벼운 워킹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

안동을 재창조하고 싶은
권기창을 만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도전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고 길을 나선다. 그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선택이 되었으면 한다. 〈그 사람 생각 중〉

권기창 지음

도서출판 : 생각나눔
판매처: 인터넷서점, 안동시내서점